

〈홍부전〉에 나타난 聖과 俗의 統攝 양상과 의미*

신호림**

<차례>

1. 문제의 소재
2. 증여적 삶과 호혜적 세계관: 聖과 俗의 접속
3.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
4. 聖과 俗의 統攝과 그 의미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홍부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聖과 俗의 統攝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성과 속이 접속되는 지점은 홍부가 보여주는 증여적 삶과 호혜적 세계관에서 마련된다. 홍부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비쳐질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결핍된 인물들에게 끊임없는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五倫의 외피를 입고 善의 지위를 획득한다. 놀부에게 쫓겨난 이후에 홍부는 마을공동체의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증여가 순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제비의 등장은 보은담의 형식을 통해 증여의 순환 논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속의 세계에 있는 마을공동체와 성의 영역에 있는 제비에게 동일한 태도로 증여행위를 하는 홍부의 모습을 통해 성과 속의 세계는 접속할 수 있게 된다.

홍부의 행동양태는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두 차례의 전쟁 이후 조선후기 향촌사회는 사회적 동요를 봉합하기 위해 공동체적 규범을 다

* 이 논문은 2017년 8월 11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제99차 한국고전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유익한 논평과 조언으로 도움을 주신 서유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져나갔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계윤리를 위해 공동체적 단위에서 도출되는 도덕경제가 개인의 행위에 기입될 수 있었다. 호혜성의 규범과 생계에 대한 권리를 두 가지 도덕적 원리로 가지는 도덕경제 체계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보다는 상호호혜적인 방향성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런 양상은 흥부가 마을공동체와 제비를 향해 증여행위를 하고, 증여의 순환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과 연결된다.

<흥부전>에서 성과 속은 접속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통섭의 단계로 나아간다. <흥부전>의 근원설화로 언급되는 모방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모방담은 성의 개입을 통해 선악담론에 당위를 제공함으로써 성이 속을 통섭하는 구도를 만들어낸다. 그에 반해 <흥부전>은 제비와 박 화소를 끌어들이함으로써 흥부의 삶의 태도에서 도출할 수 있는 도덕경제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면모를 보여주며, 성의 영역을 근거로 속의 규범을 표면으로 드러낸다. <흥부전>에서 흥부의 행위는 초월적 근거를 확보한 현실적인 행동 양태로 거듭남으로써 모방담에 나타난 성속의 통섭 양상을 전도(轉倒)시킨다.

속이 성을 통섭하는 구도는 성의 세계와 맺던 관계의 규약들을 속의 세계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상정시킨다. <흥부전>은 속이 성을 통섭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흥부전, 성과 속, 향촌사회, 도덕경제, 증여, 상호호혜

1. 문제의 소재

본고는 <흥부전>에 내재되어 있는 성(聖)과 속(俗)의 통섭(統攝)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통섭이란, ‘특정 원리에 의한 통괄(統括)적 포섭(包攝)’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¹⁾ 성과 속

1) 김상준은 근대 현상의 핵심원리[近代性]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속의 통섭 전도, 즉

의 통섭이라는 시각에서 <흥부전>에 접근하는 것은 작품에 등장하는 환상적 요소가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결핍 양상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려는 향유층의 의식이 개입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즉, 성의 영역과 결합되어 있는 ‘제비’나 ‘박’ 화소를 단순히 잘못된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초월계의 개입으로 보지 않고, 부조화된 세계를 교정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향유층의 태도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흥부전>의 환상적 장치는 흥부와 놀부로 대표되는 어떤 인물군상 또는 그들의 행동 양식에서 도출되는 모순을 바로잡고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시각은 다분히 부정적이었고, 따라서 제비나 박 화소를 ‘부수적’인 장치로 취급하거나 작품의 한계를 설명하는 주된 이유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초기 연구에서 <흥부전>의 환상적 요소들을 막연한 ‘꿈’으로 치부하고,²⁾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적 모순을 적실하게 드러내는 전반부 서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신비적이고 아름다운 환상”³⁾ 또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비현실적인 환상”⁴⁾으로 평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성이 속을 통섭했던 세계에서 속이 성을 통섭하는 세계로의 이행’이라는 구도를 이끌어냈다. 본고의 논지는 근대성과 관련이 없지만, ‘성과 속의 통섭’이라는 구도는 <흥부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아카넷, 2011, 56~57쪽.

- 2)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207쪽; 장덕순, 『興夫傳의 再考』, 『국어국문학』 13, 국어국문학회, 1955; 노혜영, 『興夫傳 研究』, 『한어한문학 논문집』 6,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965; 박선자, 『興夫傳考』, 『한국어문학연구』 6,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한국어문학회, 1965; 오송자, 『春香傳과 比較해 본 興夫傳』, 『한국어문학연구』 6,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한국어문학회, 1965, 100쪽.
- 3) 임형태, 『흥부전의 歷史的 現實性』, 『흥부전 연구』(인권환 편저), 집문당, 1991, 346쪽.
- 4) 조동일, 『<興夫傳>의 兩面性 - 판소리계 소설 연구의 방법론 모색을 위한 一試放-』, 『흥부전 연구』(인권환 편저), 집문당, 1991, 305쪽.

할 것이다. 이런 양상은 기본적으로 성과 속을 분리시켜 바라본 것으로, 신(神)에 의존하는 약한 민족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⁵⁾

그 이후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시각이 유지된다. ‘기적’이나 ‘우연’ 또는 ‘행운’과 같은 용어로 설명되었던 <홍부전>의 환상적 요소들은⁶⁾ 작품론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현실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거나⁷⁾ 사회·역사적 전망과는 거리가 먼 해결방식으로 설명되었고,⁸⁾ 수용론

-
- 5) 지급순, 「『홍부전』과 『베니스의 상인』: 作品上の 등장인물의 성격으로 고찰해 본 『홍부전』과 『베니스의 상인』」, 『Dongguk review』 3,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970, 29쪽.
- 6) 이원주, 「고대 소설의 골격적 특질 : 홍부전을 중심으로」, 『국문학』 25, 한국어문학회, 1971, 82쪽; 서대석, 「興夫傳의 民譚的 考察」, 『국어국문학』 67, 국어국문학회, 1975, 30쪽; 안승덕, 「興夫傳 主題考」, 『국문학논집』 9,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78, 128~129쪽; 우재제, 「興夫傳 主人公에 關한 意識의 一考察」, 『우리문학연구』 3, 우리문화회, 1978, 121; 이문규, 「『홍부전』의 문학적 특질에 대한 고찰」, 『선청어문』 11·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1, 337쪽; 설중환, 「『홍부전』의 상징성과 구조적 의미」, 『어문논집』 24·25, 안암어문학회, 1985, 660쪽; 전용오, 「홍부전연구: 문학 및 사회사적 측면에서의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정하영, 「<興夫傳>의 文學的 本質과 意味」, 『판소리연구』 3, 판소리학회, 1992, 81쪽; 강봉근, 「홍부전의 인물론」, 『한국언어문학』 39, 한국언어문학회, 1997, 239쪽; 하성란, 「놀부 박사설의 성격과 화폐경제인식: 퇴장화폐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310~311쪽; 조용호, 「『홍부전』의 카니발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255쪽; 유육례, 「<홍부전>의 인식 변이 양상」, 『남도문화연구』 22,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2, 210쪽. 하성란은 이후에 박사학위논문으로 논의를 확장하면서, <홍부전>의 ‘홍부박’이 이상적·환상적 부를 추구하려는 움직임보다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 부를 구현하였다고 것으로 시각을 전환했다. 하성란, 「조선후기 문학의 화폐경제 반영 양상」,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2쪽.
- 7) 김재용, 「판소리계소설의 갈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 한문학 연구』 11, 원광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86, 125쪽; 조춘호, 「형제갈등을 중심으로 본 홍부전-박타령과 박홍보전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10-1, 문학과언어연구회, 1989, 164쪽; 김미령, 「판소리계 소설을 통해 본 돈에 대한 욕망: <춘향전><홍부전><심청전>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28쪽.

적으로는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견해로까지 이어졌다.⁹⁾

<홍부전>의 환상적 요소를 둘러싼 이런 일련의 연구사적 흐름은 60년대 등장한 ‘내재적 발전론’이나 ‘자본주의 맹아론’, 70년대에 이어진 ‘근대 기점 논쟁’에 긴박(緊縛)된 감이 없지 않았다.¹⁰⁾ 그러나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문제제기에 머물렀을 뿐 곧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기존과는 다르게 <홍부전>의 ‘환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환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거나,¹¹⁾ 더 꺾진하게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보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두 경우 모두 ‘환상=비현실’이라는 구도를 부정했다

-
- 8) 우쾌제(1978), 앞의 논문; 이현국, 「조선조 후기 소설의 현실 대응 양상과 그 의의: <이해룡전><허생전><홍부전>에 나타난 물질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학』 72, 한국어문학회, 2001, 308쪽; 김기동, 「李朝後期小說의 研究: 판소리系 小說을 中心하여」, 『국어국문학 논문집』 9-10,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975, 116쪽. 김기동은 “作品的인 價値를 떨어뜨리는 非現實的인 構成”이라고 보았다.
- 9) 김진원, 「고대소설에 나타난 비평 의식<1> -홍부전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22-1, 한국국어교육학회, 1975, 245쪽; 진영환, 「興夫傳 研究」, 『논문집』 19, 대전공업전문학교, 1976, 200쪽; 간복균, 「興夫傳과 金裕貞의 比較研究: 諸謔性을 中心으로」, 『학술논총』 8,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4, 12쪽; 김임구,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 재산 형성의 정당성 시각에서 본 『홍부전』」, 『비교문학』 39, 한국비교문학회, 2006, 39~40쪽; 유육레, 「<홍부전>의 인간의 변이양상」, 『동양문화연구』 25,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6, 207쪽.
- 10) 이에 관련해서는 김임구(2006), 위의 논문; 김창현, 「『홍부전』의 주제와 현대적 의미 -근대극복을 위한 문학연구 방법론 모색 시고」, 『비교문학』 41, 한국비교문학회, 2007 참고.
- 11) 김창진, 「《홍부전(興夫傳)》 보은담(報恩譚)의 상징성 고찰 -한문단편 보은담(報恩譚)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11, 국제어문학회, 1990, 89쪽; 김창진, 「홍부전의 이본과 구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406쪽; 김창진, 「판소리게 소설에 나타난 抵抗性」, 『세계한국어문학』 3,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87쪽; 최윤오, 「홍부전과 조선후기 농민층 분화」, 『역사비평』 57, 역사문제연구소, 2001, 288쪽.
- 12) 설성경, 「興夫傳의 必然性과 當爲性: 興夫의 極貧과 名地 挿話가 지닌 貧富轉移

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환상적인 요소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낭만적 돌파구’로 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일상의 경험적 현실에 비추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현상들을 지시하는 용어로 ‘환상’을 사용한다면, ‘환상=비현실’의 구도가 유효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건도 종교적·형이상적 세계관에서는 일상적 경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¹³⁾ ‘환상=비현실’이라는 도식은 온전히 성립되지 않는다. 환상을 통해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 이후의 삶을 엿볼 수 있다면 환상은 또 다른 층위를 획득하는데, 이와 같은 문학적 성향을 ‘낭만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낭만성을 경험적 현실에 취하는 문학 향유의 한 방식으로 본다면, 강상순의 지적처럼 현실성과 낭만성은 ‘현실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즉, 현실성이 ‘현실에 기반하여 실재를 지향하고자 하는 태도 혹은 그와 같은 태도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성향’을 지시한다면,

構造를 中心으로, 『연세국문학』 3,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2, 41쪽; 정하영(1992), 앞의 논문, 82쪽; 정출현, 『탐욕이 넘쳐나는 시대에 『홍부전』 다시읽기』, 『문학과정계』 3-2, 문학과과정계사, 2003, 296쪽; 이상일, 「〈홍부전〉에 나타난 인간 소외의 두 양상: 홍부와 놀부의 욕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256쪽. 정출현과 이상일은 ‘홍부박’을 민중의 소망과 연결시켜 해석했지만, ‘놀부박’에 대해서는 우연스럽거나 신비로운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 13) 김성룡,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참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충권은 “조월적 요소는 현실 속에서 좌절된 홍부의 성조 의지와 부의 실현 욕망을 거의 신앙적 차원에까지 이르게”했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즉, 성조신(가신)적 존재를 잘 떠맡든 홍부가 부를 획득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로 보고, 성조신앙이라는 보편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당위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단순한 우화(寓話)나 환각(幻覺)이 아닌 또 다른 문학적 장치로 제비와 박 화소를 설명한 것이다. 정충권, 「〈홍부전〉과 성조신앙-〈성조가〉의 관련성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1, 한국구비문학학회, 1994, 298~299쪽.

낭만성은 ‘현실에 맞서 현실 너머를 지향하고자 하는 태도 혹은 그와 같은 태도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성향을 지시하는 것이다.¹⁴⁾ 따라서 낭만적 지향은 결과적으로 환상적인 것에 대한 선호로 귀결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비현실’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낭만성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에 대한 또 다른 태도를 뜻하기 때문이다.

제비나 박과 같은 요소들은 낭만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복을 꿈꾼 소산물”¹⁵⁾로 읽힐 수 있다. <홍부전>에는 민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실 논리가 투영될 수 있으며,¹⁶⁾ 그 나름의 서사적 인과성을 유지함으로써 현실적인 충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¹⁷⁾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제비와 박을 통해 <홍부전>이 ‘어떤’ 현실을 투영시키고자 했느냐 하는 점이다. 그 실마리는 이른바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했던 몇몇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홍부전>에서 홍부가 ‘자연친화적’ 면모를 보인다는 언급¹⁸⁾에서 시작한 생태학적 연구는 홍부가 제비를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세와 연결된다는 점, 따라서 홍부의 선행(善行)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¹⁹⁾ <홍부전>에는 현실과 초현실, 현실과 자연간의 긴밀한 상관성, 또는 상보적 세계관이 내

14) 강상순, 『한국 고전소설의 낭만성』, 『한국 고전소설과 정신분석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132쪽.

15) 정충권, 『형제 갈등형 고전소설의 갈등 전개 양상과 그 지향점: <창선감의록>, <유효공선행록>, <적성의전>, <홍부전>을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298쪽.

16) 유광수, 『홍부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26쪽.

17) 김종철, 『홍부전의 지향성 연구』, 『선청어문』 1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2, 111쪽.

18) 권동수, 『홍부전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 ‘제비’의 의미 파악을 중심으로』, 『나랏말쌈』 14,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1999, 142쪽.

19) 광정식, 『홍부전 신역』, 『한국문학논총』 13, 한국문학회, 1992, 142~145쪽.

제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⁰⁾ 다시 말해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했다는 것에서부터 흥부를 재평가해야하며²¹⁾ “생태주의에 걸맞는 인성론의 대안”²²⁾을 작품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본고는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흥부전>을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다만, 성의 영역과 관련된 제비를 대하는 흥부의 모습과 속의 영역 즉, 조선후기 현실사회를 살아가는 흥부의 모습이 모순을 보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태학적 접근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시각은 “제비 역시 흥부 놀부와 함께 <흥부전>의 작품 세계를 이루는 엄연한 한 주체”²³⁾라는 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제비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보다 흥부나 놀부와 같은 ‘인간과 맺는 관계’에서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흥부와 제비, 놀부와 제비가 맺는 관계는 각각 어떤 현실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는 곧 <흥부전>에 나타난 성과 속이 어떻게 통섭되느냐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흥부를 중심으로 그의 삶의 태도와 제비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 보은(報恩)의 과정까지 이어지는 증여의 순환과 호혜적 세계관을 도출하고, 이것이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 과정에서 흥부와 대립적 자질을 가지는 놀부의 관점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제비나 박과 같은 성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환상이 현실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20) 김진영, 『<흥부전>의 人物形象』, 『인문학연구』 5,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117쪽.

21) 정충권, 『<흥부전>과 <바리공주>의 문학치료학적 독해 - 비교의 관점에서』, 『문학치료연구』 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74쪽.

22) 허원기, 『흥부전의 인성론적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19, 한민족문화학회, 2006, 187쪽.

23) 정충권, 『<흥부전>의 생태론적 고찰』, 『흥부전 연구』, 월인, 2003, 330쪽.

대상 텍스트는 경관 25장본 <興富傳>(이하 <경관본>)²⁴과 신재효본 <박타령>(이하<신재효본>)²⁵으로 하되,²⁶ 필요한 경우 박봉술 창본 <홍보가>(이하 <박봉술본>)²⁷도 언급하도록 하겠다.

2. 증여적 삶과 호혜적 세계관: 聖과 俗의 접속

홍부에 대한 평가는 연구사적으로 윤리적·계급적·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윤리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다분히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본 장에서는 잠시 홍부라는 인물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벗어나, 홍부가 조선후기 향촌사회를 표상하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타인을 대하는지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우선, 놀부가 홍부를 쫓아내는 초반부 서사를 보자. ‘형제’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부 또한 넉넉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놀부가 홍부를 쫓아낼 때 <경관본>에서는 “홍부 갖튼 어진 동심을 구박하여 건넌산 언덕 밋히 닐썩리고”(1-앞)라고만 되어 있지만, <신재효본>에서는 놀부 심술대목 다음에 홍부에 대한 묘사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홍보의 마음씨는 제 형과 달나 부모의게 효도하고 얼운을 존경하며 일이

24)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2003, 11~39쪽.

25) 위의 책, 73~134쪽.

26) 이 두 이본을 대표 텍스트로 상정한 이유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등장했고, 기록 전승과 구비 전승이라는 이원적 전승양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기록 전승과 구비 전승의 이원적 전승맥락에 대해서는 정충권, 『경관 <홍부전>과 신재효 <박타령>의 비교 고찰』, 『관소리연구』 12, 관소리학회, 2001을 참고했다.

27)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1997, 585~636쪽.

의 화목하고 친고에게 신이 있어서 굴머서 죽을 사람 먹던 밥 덜어주고 얼어서 병난 스람 입엇픈 옷 버셔 주기 늘근이 질머진 짐 즈청혀여 저다주고 장머찌 큰 물가의 삭 안 밧고 월천헝기 남무 집이 부리 나면 세간스리 직켜주고 길 의 보물 썩져씨면 직켜 썩다 임즈 주기 청산의 빅골 보면 집피 파고 무더주고 슈결과부 보즙헝면 쫘츠가셔 썩여노키 어진 사람 모함헝면 디로 나셔 발 명헝고 익잔한 놈 황악 보면 달여들어 구완헝기 길 일은 어린 아희 저의 부모 차져 주고 슈막의 병든 사람 본가의 기별 전키 게침불살 방장부절 나무 일만 흐노라고 한 푼 돈을 못 버으니 놀보 오쪽 뒤여 흐라

<신재효본> 3-뒤~4-앞

<경판본>과 다르게 놀부와 대립적 자질을 가진 인물로 흥부를 그려내기 위해 <신재효본>에 추가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상을 살펴보면, 흥부는 집에서 쫓겨나기 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타인을 위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굶고 있는 사람에게 밥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기까지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마을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준다.²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그 부(富)를 이용해서 어떤 종류의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기까지 한다.

이런 흥부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이웃간의 화목과 친구간의 신의를 지키는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흥미롭다. 흥부의 행동은 “나무 일만 흐노라고”로 그려지는데 이를 부자유친(父子有親),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유신(朋友有信)과 같은 오륜(五倫)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적 덕목을 함양했다는 것은 흥부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인물의 덕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며, 선(善)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상징적인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푼 돈을 못 버으니”는 놀부의 입장에서

28) 김창현은 이를 “소비의 공유를 실천”한다고 표현했다. 김창현(2007), 앞의 논문, 301쪽.

홍부를 미워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 증여 활동을 하는 홍부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선인(善人)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놀부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홍부는 궁핍한 삶을 이어나간다. 궁여지책으로 놀부를 찾아가보지만 곧 도움을 거절당한다. 홍부는 쫓겨나기 전 자신처럼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인물들을 만나지 못하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놀부의 거절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홍부이기 때문에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인간관과 삶의 태도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수순²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신재효본>에서처럼 “이곳 저곳 비러먹어”(5-뒤)가며 생계를 유지할 뿐이다.

다만, <경판본>에서 단편적으로 주목해볼만 한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장자’이다. <경판본>에서 홍부는 짚신이라도 삼아 팔려고 장자의 집에 찾아가는다. ‘장자’는 여타 서사문학에서도 나타나듯 ‘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는 홍부에게 질 좋은 짚을 선뜻 내어주고, 홍부는 그 짚으로 짚신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간다(5-앞~5-뒤). 이 장면은 모든 이본에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삽화로서만 존재하지만, 이제 구걸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 홍부가 제비를 만나기 전까지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홍부의 일방적인 증여뿐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의 홍부를 위한 증여 또한 존재함을 은연 중에 보여준다. 즉, 일차적으로 ‘증여’는 홍부의 선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결국 증여는 순환해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의 순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비박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제비박 화소는 기본적으로 동물보은담(動物報恩譚)에 기초하고 있다.

29) 정충권(2003), 앞의 논문, 342쪽.

홍부가 다리를 다친 제비를 구해주자 제비는 제비 황제(<경관본>)나 제비 장군(<신재효본>)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보은표 박씨를 홍부에게 다시 전달한다. 홍부의 선행을 타산에 기초한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³⁰⁾ 순수한 계기로 제비에게 ‘선행’이라는 일종의 증여행위를 하고, 그것이 다시 ‘박씨’의 형태로 홍부에게 되돌아온 것뿐이다.

제비박 화소에서 나타나는 증여의 순환, 이는 마르셀 모스(Marcel Mauss)가 『증여론』에서 前 자본주의 시대에 포착되는 물(物)의 순환과 매우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³¹⁾ 모스는 등가물(等價物)이 오고 가는 교환 체계와는 구별되는 비균형적 교환 체계에 주목해서, 증여 받았을 경우의 무적으로 답례를 하게 하는 법이나 이해관계의 규칙에 대해 고찰했다. 화폐가 존재하기 이전의 거래 양식을 증여를 기반으로 한 전체적 급부 체계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주기와 받기 그리고 답례’라는 삼중의 의무를 도출한 것이다.³²⁾

물론, ‘최초의 증여’가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에 주목해보면,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 사이에 ‘우위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³³⁾ 성과 속, 신과 인간 사이에서의 위계는 보통 성의 영역 또는 신이 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통 증여는 ‘속→성’으로 ‘인간→신’의 방향으로 먼저 이루어지는데,³⁴⁾ 흥미로운 점은 증여자가 자신이 증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

30) 김진영(2001), 앞의 논문, 115~116쪽.

31) 증여의 개념으로 보은담을 설명하고 그 유형을 나눈 연구로는 이강엽, 『보은담(報恩譚)의 유형(類型)과 의미(意味): “교환(交換)”과 “증여(贈與)”의 측면에서』, 『고전 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이강엽, 『보은담(報恩譚)의 새로운 이해와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4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1을 참고할 수 있다.

32) 이에 대해서는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 『증여론』, 한길사, 2002.

33) 모리스 고들리에, 오창현 옮김, 『증여의 수수께끼』, 문학동네, 2011, 28쪽.

34) 고들리에에는 모스가 자신의 분석에서 “신과 정령이 이미 인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인간인 증여자는 처음부터 신성한 수증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실을 인지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순환은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증여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전쟁을 선언하는 것” 또는 “결연과 교제를 거부하는 것”³⁵⁾으로 받아들여질 뿐,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등가교환이든 비등가교환이든 관계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물(物)의 순환은 <홍부전>에서 비등가·비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며, 홍부는 보은포 박을 통해 부(富)를 획득한다. 홍부가 제비에게 “자신이 베푼 호의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았다”³⁶⁾는 해석은 등가교환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일 뿐, 증여적 관점에서 보면 홍부가 제비에게 받은 보상은 ‘주기-받기’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홍부전>에서는 ‘주기-받기’에서 ‘답례하기’의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경판본>의 결말부에서 재산을 모두 잃은 놀부가 홍부를 찾아가는 장면, 나아가 <신재효본>에서 홍부가 놀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장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판본>과 <신재효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박봉술본>을 보면 또 다른 ‘답례하기’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박봉술본>에서는 첫째 박에서 나온 돈으로 기민(饑民) 구제를 하겠다고 공표하기 때문이다.

[중중물이]

“얼씨고나 좋을씨고, 얼씨고나 좋을씨고,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구나, 얼씨고나 좋을씨고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고나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고나 돈 봐라. 야, 이 자식들아, 춤 춰라. 어따, 이 놈들, 춤을 추어라.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는

사고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위의 책, 55쪽.

35)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2002), 앞의 책, 74쪽.

36) 유육레(2016), 앞의 논문, 207쪽.

나? 얼씨고나 좋을 시고. (…중략…)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홍보를 찾아오오. 나도 내일부터 기민을 줄란다, 얼씨고나 좋을시고. 여보시오 부자들, 부자라고 좌세 말고 가난타고 하늘 마소. 엇그저께까지 박홍보가 문전 걸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니, 석승이를 부러히며 도주공을 내가 부러워할그나? 얼씨고 좋을시고. 얼씨고나 좋구나.”³⁷⁾

증여의 순환이 1:1로 이루어질 필요성은 없다. 때로는 제3자 또는 제4자나 5자를 거쳐서 순환되기도 하는 특성을 가진다.³⁸⁾ 홍부는 놀부에게 쫓겨나기 전 부유하게 지냈던 때처럼 제비박으로 거대한 재산을 얻었을 때 “기민을 줄”려고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신재효본>의 “굴머서 죽을 사람 먹던 밥 덜어주고 얼어서 병난 스람 입잇쓴 옷 버셔 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부자라고 좌세 말”리는 홍부의 언사는 ‘부’리는 것이 고정 불변의 실체가 아니며 언제나 순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까지 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홍부의 증여행위가 타인을 향해 있고, 이것이 순환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향적인 증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증여를 통해 ‘연대 관계’³⁹⁾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집단 즉,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홍부전>에서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교섭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홍부와 마을공동체, 홍부와 제비 사이에서 일어나는 증여의 순환을 병치(並置)시킴으로써 성의 영역과 속의 영역이 접속되는

37)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 강호봉 편저(1997), 앞의 책, 609~610쪽.

38) 이에 대해서는 아네트 와이너(Annette Weiner)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Annette B. Weiner, *Inalienable Possessions -The Paradox of Keeping-While-Giv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39) 상호증여를 통해 연대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 (2002), 앞의 책 참고.

지점을 마련한다. 물론, 이 과정을 선행연구에서처럼 일상의 삶에 갑자기 제비나 박 화소와 같은 환상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흥부가 관계를 맺는 성과 속의 대상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증여의 논리가 실제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경제관념에서 포착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기가 가능하다. 제비와 박이 현실로 호출된 원인을 ‘환상’ 외의 성격으로 규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잠시 시선을 돌려 <흥부전>에 반영된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

<흥부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지점은 주로 흥부와 놀부의 경제관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선후기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요호부민(饒戶富民)과 같은 새로운 계층이 나타나고,40) 자연스럽게 신분질서가 와해되었다는 역사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를 자본주의의 맹아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분명,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신분적 경계가 모호해졌고, 농민 중 일부는 지주나 부농(富農)적인 지위를 누릴 수도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분적 지배와 가혹한 경제적 수탈·착취, 이로 말미암은 지주/농민간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는 소수의

40) <흥부전>의 해석에서 놀부를 ‘요호부민’으로 규정한 연구는 김종철, 『<웅고집전> 연구: 조선후기 요호부민의 동향과 관련하여』, 『한국학보』 20-2, 일지사, 1994; 황혜진, 『조선후기 요호부민(饒戶富民)과 부(富)에 대한 시선』, 『관소리연구』 43, 관소리학회, 2017

지주에게 집중되고, 농민층이 토지를 상실하고 작인(作人)으로 전락하는 흐름도 부분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흥부/놀부의 관계 또한 이런 구도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양상을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들 모두 향촌사회의 구성원이었고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했기 때문이다. 사실 지주나 부농의 지위를 누린 농민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전호농민(佃戶農民)이나 임노동자로 존재했다.⁴¹⁾ 그들이 속한 마을은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쉽지 않은 자급자족적인 농촌공동체로서 존재했으며,⁴²⁾ 이런 폐쇄적 체계에서는 ‘한정된 재화’라는 특징 때문에 누군가에게 재화가 편중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의 비공식적이고도 비조적적인 제재가 가해지기도 했다.⁴³⁾ 다시 말해 남들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일종의 공동체적 의무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신분과는 무관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이었다.⁴⁴⁾

제임스 스콧(James Scott)의 용어를 빌리자면, 향촌사회는 도덕경제

41) 정진영, 『사족과 농민 -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상호 의존적 호혜관계-』,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42) 김성우, 『조선시대 농민적 세계관과 농촌사회의 운영원리』, 『경제사학회』 41, 경제사학회, 2006, 11쪽. 논자는 19세기 말까지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이천, 부산, 원산과 같은 개항장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가 생산과 자가 소비에 기초한 농촌공동체가 유지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43) 한경구, 『전통사회 농민들의 경제관』,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한국문화인류학회 편), 일조각, 1998.

44) 17세기 전반~18세기 전반 사이에, 양반들의 토지소유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적지 않은 상민들은 토지소유 규모를 확대해갔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본다면 양반과 평민의 경제력 차이가 그 이전시기보다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건태, 『17~18세기 田畝소유규모의 영세화와 양반층의 대응』, 『한국사학보』 9, 고려사학회, 2000, 59~77쪽 참고. 물론 사족(士族) 또한 치자(治者)로서의 자의식이나 유자(儒者)로서의 민본·민생에 대한 공적인 의식을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소유하고 있었다. 정진영(2015), 앞의 논문, 155쪽.

(moral economy)와 관련되어 있다.⁴⁵⁾ 도덕경제는 前 자본주의 시대에 동남아시아 지역 농촌사회의 ‘생계윤리(right to subsistence)’에서 비롯된 개념이다.⁴⁶⁾ 농민은 일차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모험보다는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선택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를 안전제일(safety first) 원칙이라고 부른다.⁴⁷⁾

안전제일의 원칙은 농민이 위험을 극소화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했고,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특정한 논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호혜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이다. 기근과 같은 자연적 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직면했을 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이때 공동체 차원에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상호 호혜적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도덕경제는 바로 “두 가지 도덕적 원리—호혜성의 규범과 생계에 대한 권리—”⁴⁸⁾에 의해 작동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를 존속시킨다.

인류의 경제활동이, 원자화된 개인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반해, 前 자본주의 농촌사회를 일종의 공동체적 정의가 실현되던 사회로 파악한 스콧의 논의는 조선후기 향촌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월봉(月峰) 구상덕(具尙德: 1706~1761)이 영조 1년(1725)부터 영조 37년(1761)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45) 이와 관련해서는 제임스 스콧, 김춘동 옮김, 『농민의 도덕경제』, 아카넷, 2004를 참고했다.

46) 물론, 스콧은 “여기에서 제시되는 증거는 주로 동남아시아의 것이지만, 나는 이것이 많은 농촌사회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며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도덕경제 논의를 조선후기사회로 적용시키고자 한 연구로는 이명희, 『조선후기 鄕村의 地域共同體 문화와 자치적 전통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1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김성우(2006), 앞의 논문 등이 있다.

47) 제임스 스콧, 김춘동 옮김(2004), 앞의 책, 41쪽.

48) 위의 책, 226쪽.

의 생활을 기록한 『승충명록(勝聰明錄)』에서는 1728년, 1732~1733년, 1750년, 1754~1756년을 대기근이 든 해로 서술하고 있으며, 각종 생계불안의 징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⁴⁹⁾ 거의 3~4년마다 겪는 생존위기 상황과 농업의 산업적 특성이 협동적인 노동공동체를 요구했으며, 토지가 희소하고 노동이 풍부한 이른바 소농사회(小農社會) 하에서의 생존보장에 대한 욕구는 도덕적인 권리에 입각한 공동체적 습속을 전통사회의 일 반적인 모습으로 발전시켜나간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⁵⁰⁾

이런 시각에서 조선후기 향촌사회를 바라본다면, 공동체의 규범은 생계윤리라는 공통적인 목표 하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인의 행위에 기입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조선후기 향촌사회가 왜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이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공동체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지와 물건을 중심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존속을 꾀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⁵¹⁾ 향약(鄉約)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강화도 이루어졌다.⁵²⁾ 그리고 19세기 야담집인 『계서야담(溪西野談)』에 수록되어 있는 <귀향(歸鄉)>⁵³⁾과 같은 작품에서 공동체 속 개인에게 요구되는 도덕경제를 문학

49) 이에 대해서는 옥영정·심영환·박용만·전경목·김건우·노혜경, 『승충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촌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을 참고했다.

50) 이명희(2002), 앞의 논문, 392쪽.

51) 김홍주, 『조선 향촌규약에 나타난 마을공동체 운영 특성: 고현향약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79, 국토연구원, 2013.

52) 김창진의 다음의 언급을 참고해볼 수 있다. “향약과 함께 17세기 이후 조선 촌락사회에서 공동노동조직인 ‘두레’가 활성화된다든지 하는 등 상천민들만의 촌계류 조직이 촌락사회 안에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던 당시 시대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추측되는 것이다. 김창진, 『놀부가 흥부를 내쫓은 까닭은? -<흥부전>의 주제는 ‘공존공영’이다(2)-』, 『국제어문』 22, 국제어문학회, 2000, 21쪽.

53) 본고에서는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상)』, 일조각, 1982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귀향>이라는 제목 또한 이우성·임형택이 붙인 것임을

적으로 형상화한 예도 확인할 수 있다.

<귀향>은 최생(崔生)이라는 인물이 귀향하여 10년간 치부(致富)하는 이야기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최생은 10여 결의 넓은 토지를 스스로 경영했고, 농지를 팔아 곡물을 매입하거나 곡가의 변동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며 부를 축적해나간다. 대풍년 때 4천여 석의 곡식을 모은 최생은 이듬해 여름에 가뭄이 들고 가을에 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대기근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양곡을 나누어준다. 무려 500여 농가의 1,300여 명에게 양식을 분배한 최생은 공동체의 굶주림을 해소했다. 이후 최생이 빈곤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6만 석을 돌려준다. <귀향>은 최생의 치부담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뿐 아니라, 공동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부를 환원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그리고 이후 공동체가 다시 최생을 도와주는 장면까지 고려한다면, 조선후기 향촌사회를 지배했던 상호 호혜적 관계망이 작동되는 좋은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조선후기 향촌사회가 공동체적 삶을 토대로 호혜성의 규범과 생계에 대한 권리를 추구했다고 해서 이것이 <귀향>에서처럼 항상 낭만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었다. 임자(壬子, 1732)~계축(癸丑, 1733)년간 전라도 장흥지역에서 발생한 대기근과 민(民)에 대한 폭압적 수탈상을 포착한 사족지식인의 가사 작품인 <임계탄(壬癸歎)>을 보더라도, 공동체의 규범이 무너지고 참혹한 삶을 이어나가는 농민들을 확인할 수 있다.⁵⁴⁾ 물론, 농민들의 아픔에 대한 전언 및 호소뿐 아니라 치자(治者)들의 근원적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체험적 진술로 나타나 문제해결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지만, 죽어가는 유민, 휘상되는 시신, 전염병

밝힌다.

54) 이에 대해서는 이형태, 『18세기 전반의 농민현실과 『임계탄(壬癸歎)』』, 『민족문화사연구』 22, 민족문화사학회, 2003.

으로 죽어가는 백성, 소지조차 올릴 수 없게 굳게 닫힌 단청의 문, 그리고 그런 폐정(弊政)에 대한 분노가 얽혀있는 <임계탄>은 당시 호혜적 관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향촌사회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

<귀향>과 <임계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후기 향촌사회를 어느 하나의 시각으로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홍부전>에 접근함에 있어서 늘부식의 폐단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2장에서 살펴보았던 홍부식의 호혜적 세계관에도 분명 현실적인 토대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⁵⁵⁾ 조선후기에는 “自給經濟 再分配經濟 등 여러 형태의 非市場經濟가 상당한 비중으로 강고히 존속”⁵⁶⁾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홍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도출될 수 있다. 홍부에게 붙여진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오명은 사실 홍부가 원자화된 개인이 보여주는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홍부는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대신 본인과 타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 주목했을 뿐이다.

홍부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던 제비박에서도 이와 같은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무한재보담(無限財寶譚)이라는 수식과 걸맞지 않게 홍부의 제비박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의식주(衣食住)에 한정되어 있다. 제비박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55) 정진영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촌락의 농민은 사족의 이런 역할에 대해 일방적 혹은 수동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당연히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농촌사회 농민들의 단순하고도 분명한 생각이었다. 사족 또한 농민으로부터의 보답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었다. 농민은 이러한 사족에게 더 큰 존경이나 복종으로 보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같은 호혜성의 도덕적 원리는 농민생활의 전반에 스며있다.” 정진영(2015), 앞의 논문, 180쪽.

56) 이영훈, 『조선후기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과제』,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이영훈 편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372쪽.

있으며, 의식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은 홍부의 행복을 보장하는 최대치였던 것이다.⁵⁷⁾ 게다가 <박봉술본>에서 살펴본 것처럼 잉여재산은 ‘축적’보다는 ‘분배’로 나아감으로써 공동체와의 호혜적 관계도 형성하고 있다.⁵⁸⁾

<홍부전>에서 홍부는 생계운리를 지키며 호혜성의 규범을 실천해나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유한 생활과 궁핍한 삶을 모두 겪었던 홍부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마을공동체나 제비를 향한 증여행위를 지속했고, 그 증여는 결국 순환·증식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다. ‘꿈’이나 ‘행운’이라는 설명은 이 과정을 온전히 이해시키지 못한다. 더욱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놀부⁵⁹⁾는 농촌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⁶⁰⁾ 놀부의 재산이 결국 밖에서 나온 유랑민들에게 돌아가는 과정은 타인을 향한 증여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지주나 부자에게 요구되던 덕목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홍부전>에는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도덕경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의 축적보다는 공동체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초점을 맞춘 체계였고, 호혜성의 규범은 이를 가능케 하는 윤리적 제어장치였다. 홍부는 성과 속의 영역과 접촉하며 증여의 순환을 통해 이런 규범들을 현실화시켜나갔다. 이 과정에서 <홍부전>에서 성과 속은 접촉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통섭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통섭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홍부전>에서 제

57) 김종철, 『홍부와 놀부 박의 화두(話頭) -행복과 욕망, 그리고 선악(善惡)-』, 『선청어문』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50~51쪽.

58) 김종철은 이런 면모를 봤을 때 결코 홍부가 돈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위의 논문, 52~53쪽.

59) 이지영, 『<홍부전>의 ‘놀부심술사설’ 연구: 무가계 사설의 하나로서』, 『고소설연구』 7-1, 한국고소설학회, 1999, 298쪽.

60) 김창현(2007), 앞의 논문, 294쪽.

비나 박과 같은 환상적 장치를 견인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聖과 俗의 統攝과 그 의미

성과 속이라는 개념은 상호 대조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성스러운 것의 정의는 우선 속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⁶¹⁾ 따라서 둘의 관계는 구분되어 보이지만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이중성은 성의 영역이 속의 세계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

보통 속의 세계에 성의 영역이 현현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속의 세계에 고정점을 부여하고, 혼돈에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세계와 삶을 발견하기 위함일 것이다.⁶²⁾ <홍부전>에서도 성의 영역에 속한 제비의 개입은 혼란한 현실세계를 교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홍부전>에 나타난 성과 속의 관계와 그 해석을 이 정도에서 멈춘다면 <홍부전>의 근원설화로 거론되는 작품들과 별다른 차별점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홍부전>의 근원설화로 주로 거론되는 모방담이 선악 대립에 중점을 두는 것에 반해 <홍부전>에는 경제적 담론이 개입되어 빈부 대립으로까지 작품의 구조가 확장된다.⁶³⁾ 모방담은 선한 인물의 우연적 선행과 그에 대한 보답, 악한 인물의 의도적 악행과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가 서사적 틀을 형성한다. 모방담에서는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선하다는 ‘원인’의 측면을 강조하고, 인간은 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61) M 일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과 속』, 한길사, 1998, 48쪽.

62) 위의 책, 57쪽.

63) 정충권(1994), 앞의 논문, 277쪽.

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⁶⁴⁾

선함에 대한 당위적 설득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인에게는 보상을, 악인에게는 징치(懲治)를 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지점에서 바로 성의 영역이 개입될 수 있다. 성의 영역은 선한 인물에게 기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해줌으로써 교훈적인 의미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모방담은 성의 영역이 속의 세계를 포섭함으로써 선악담론에 당위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부전>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홍부전>에서는 경제담론이 개입됨으로 인해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부유해질 필요는 없으며, 악한 사람이 부를 획득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부는 선악을 떠난 중립적 가치의 개념이며, 따라서 <홍부전>에서는 더 강력한 당위의 근거가 요구될 수 있다.

정충권은 이를 창조신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앙적 차원에서 <홍부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당위를 설명함으로써 성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본 것이다.⁶⁵⁾ 정충권의 시각에서 보면 <홍부전>은 모방담보다 성의 영역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홍부전>의 결말에 개연성을 부가하고, 성에 의한 속의 통섭을 심화시키는 구도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홍부전>에 반영된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제를 염두에 두면, 성과 속의 통섭은 다른 양상을 지니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홍부전>에서는 홍부와 마을공동체, 홍부와 제비 사이에서 일어나는 증여의 순환을 병치시킴으로써 성의 영역과 속의 영역이 접속되는 지점을 마련한다. 그리고 속의 세계에서 홍부가 보여주는 경제관은 조선후기에

64) 위의 논문, 297쪽.

65) 위의 논문, 299~300쪽.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었던 규범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괴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결국 <홍부전>은 제비와 박 화소를 끌어들이므로써 홍부의 삶의 태도에서 도출할 수 있는 도덕경제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면모를 보여주며, 성의 영역을 근거로 속의 규범을 표면으로 드러낸다. 다시 말해 <홍부전>에서 홍부의 행위는 초월적 근거를 확보한 현실적인 행동 양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홍부전>에서는 모방담에 나타난 성속의 통섭 양상을 전도(轉倒)시킨다. 이를 도식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모방담과 <홍부전>에서 聖俗의 統攝 양상

| 모방담에서 성속의 통섭 양상 | <홍부전>에서 성속의 통섭 양상 |
|---|---|
| | |
| 성(聖)에 의한 속(俗)의 통섭 - - - - - 성(聖)의 영역 ——— 속(俗)의 영역 | 속(俗)에 의한 성(聖)의 통섭 - - - - - 속(俗)의 영역 ——— 성(聖)의 영역 |

[도식 1]은 <홍부전>이 민담적 차원을 넘어 ‘초월성의 내재화’에 성공한 행동규범을 담지했음을 보여준다. 속에 의한 성의 통섭 구도가 마련되면서 홍부의 행위와 이에 따른 보상을 더 이상 꿈이나 행운으로 간주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부를 단순히 경제적 무능력자가 아닌 당대 향촌사회의 존속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적 행위를 수행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상호부조의 원리는 생존경쟁의 원리와 더불어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 “모두에 맞선 각자의 전쟁은 자연의 유일한 법칙이 아니다. 상호

투쟁만큼이나 상호부조 역시 자연의 법칙이다”⁶⁶⁾라는 크로포트킨(Pyotr Alekseyevich Kropotkin)의 언급처럼, 상호부조는 그동안 인류를 포함한 동물들의 생존 법칙이기도 했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양난(兩亂) 이후 조선사회는 분명 균열을 일으키고 동요했다. 특정 계층에 의한 경제적 수탈과 착취, 농지의 독점 등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향촌공동체는 그 나름의 규범을 만들어내고 신분을 넘어 개인보다 집단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때 규범을 지탱했던 원리는 최소한의 생계윤리와 호혜적 규범으로서, 이는 이미 자연이나 초월적 세계와의 소통에서 이루어 지던 것들이었다. 성의 세계와 맺던 관계의 규약들을 속의 세계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상정시킨 것이다. 모방담과 <홍부전>에 나타난 성숙의 통섭 양상을 비교해 봤을 때, <홍부전>은 이러한 면모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부전>은 “民衆들의 聲援에 보답”⁶⁷⁾하고 있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⁶⁸⁾

5. 나가며

본고는 <홍부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성과

66) P. A. 크로포트킨 지음, 김영범 옮김, 『만물은 서로 돕는다 :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르네상스, 2005.

67) 이용식, 『홍부전 주제의 고찰』, 『홍부전 연구』(인권환 편저), 집문당, 1991, 371쪽.

68)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홍부전>의 환상적 요소들이 심리학적으로 초자아를 강화시켜 사회적인 규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서은아의 논의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서은아, 『독자 수용의식의 측면에서 살펴 본 『홍부전』의 문학적 가치』, 『태릉어문연구』 8,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9, 281쪽.

속의 통섭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홍부를 ‘경제적 무능력자’로 보는 시선에서 탈피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홍부의 행위에 주목했다. 홍부는 풍족한 재산을 소유했을 때, 놀부와는 달리 부를 증식시키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을공동체 안에서 결핍된 인물들에게 끊임없이 증여행위를 시도했다. 홍부의 행위는 곧 오류의 외피를 입고 ‘선’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홍부는 놀부에게 쫓겨난 이후에 자신이 베풀었던 만큼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의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증여가 순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제비의 등장은 보은담의 형식을 통해 증여의 순환 논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속의 세계에 있는 마을공동체와 성의 영역에 있는 제비에게 동일한 태도로 증여행위를 하는 홍부의 모습을 통해 성과 속의 세계는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홍부의 행동양태가 당시 서민들의 염원을 담아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향촌사회는 양난 이후 사회적 동요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이를 봉합하기 위해 한 편으로 공동체적 규범을 다져나갔다. 향촌사회는 폐쇄적 체계로서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관건이었고, 최소한의 생계윤리를 위해 공동체적 단위에서 도출되는 도덕경제가 개인의 행위에 기입될 수 있었다. 호혜성의 규범과 생계에 대한 권리를 두 가지 도덕적 원리로 가지는 도덕경제 체계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보다는 상호호혜적인 방향성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런 양상은 홍부가 마을공동체와 제비를 향해 증여행위를 하고, 증여의 순환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한 것과 연결된다.

<홍부전>에서 성과 속은 접속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통섭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모방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즉, <홍부전>의 근원설화로 손꼽히는 모방담은 성의 개입을 통해 선악담론에 당위를 줌으로써 성이 속을 통섭하는 구도를 만들어낸다. 그에 반해 <홍부전>은 제비와 박 화소를 끌어들이므로써 홍부의 삶의 태도에서 도출할 수 있는 도덕경계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면모를 보여주며, 성의 영역을 근거로 속의 규범을 표면으로 드러낸다. 다시 말해 <홍부전>에서 홍부의 행위는 초월적 근거를 확보한 현실적인 행동 양태로 거듭남으로써 모방담에 나타난 성속의 통섭 양상을 전도시킨다.

속이 성을 통섭하는 구도는 성의 세계와 맺던 관계의 규약들을 속의 세계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상정시킨다. <홍부전>은 속이 성을 통섭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맥락을 중시하고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진영·김현주·최혜진·이의철·강호봉 편저,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1997, 1~636쪽.
-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2003, 1~373쪽.
-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상)』, 일조각, 1982, 1~468쪽.

2. 논저

- 간복균, 「興夫傳과 金裕貞의 比較研究: 諸謔性을 中心으로」, 『학술논총』 8,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4, 3~25쪽.
- 강봉근, 「홍부전의 인물론」, 『한국언어문학』 39, 한국언어문화회, 1997, 227~248쪽.
- 강상순, 「한국 고전소설의 낭만성」, 『한국 고전소설과 정신분석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122~147쪽.
- 곽정식, 「홍부전 신역」, 『한국문학논총』 13, 한국문학회, 1992, 127~147쪽.
- 권동수, 「홍부전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 '제비'의 의미 파악을 중심으로」, 『나랏말쌈』 14,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1999, 132~150쪽.
- 김건태, 「17~18세기 田畝소유규모의 영세화와 양반층의 대응」, 『한국사학보』 9, 고려사학회, 2000, 57~96쪽.
- 김기동, 「李朝後期小說의 研究: 판소리系 小說을 中心하여」, 『국어국문학 논문집』 9-10,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975, 95~138쪽.
- 김미령, 「판소리계 소설을 통해 본 돈에 대한 욕망: <춘향전><홍부전><심청전>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7~34쪽.
-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아카넷, 2011, 1~643쪽.
- 김성룡,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82쪽.
- 김성우, 「조선시대 농민적 세계관과 농촌사회의 운영원리」, 『경제사학』 41, 경제사학회, 2006, 3~34쪽.

- 김임구,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 재산 형성의 정당성 시각에서 본 『홍부전』』, 『비교문학』 39, 한국비교문학회, 2006, 31~51쪽.
- 김재용, 『판소리계소설의 갈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 한문학 연구』 11, 원광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86, 115~128쪽.
- 김중철, 『홍부전의 지향성 연구』, 『선칭어문』 1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2, 107~129쪽.
- 김중철, 『<옹고집전> 연구: 조선 후기 요호부민의 동향과 관련하여』, 『한국학보』 20-2, 일지사, 1994, 106~143쪽.
- 김중철, 『홍부와 놀부 박의 화두(話頭) - 행복과 욕망, 그리고 선악(善惡)-』, 『선칭어문』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45~67쪽.
- 김진영, 『<홍부전>의 人物形象』, 『인문학연구』 5,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109~122쪽.
- 김진원, 『고대소설에 나타난 비평 의식<1> -홍부전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22-1, 한국국어교육학회, 1975, 239~247쪽.
- 김창진, 『<<홍부전(興夫傳)>> 보은담(報恩譚)의 상징성 고찰 -한문단편 보은담(報恩譚)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11, 국제어문학회, 1990, 77~106쪽.
- 김창진, 『홍부전의 이본과 구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518쪽.
- 김창진, 『놀부가 홍부를 내쫓은 까닭은? -<홍부전>의 주제는 '공존공영'이다(2)-』, 『국제어문』 22, 국제어문학회, 2000, 3~37쪽.
- 김창진, 『『홍부전』의 주제와 현대적 의미 -근대극복을 위한 문학연구 방법론 모색 시고』, 『비교문학』 41, 한국비교문학회, 2007, 279~308쪽.
- 김창진, 『판소리계 小說에 나타난 抵抗性』, 『세계한국어문학』 3,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69~197쪽.
- 김홍주, 『조선 향촌규약에 나타난 마을공동체 운영 특성: 고현향약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79, 국토연구원, 2013, 77~89쪽.
- 노해영, 『興夫傳 研究』, 『한어한문학 논문집』 6,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965, 37~45쪽.
- 박선자, 『興夫傳考』, 『한국어문학연구』 6,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한국어문학회, 1965, 40~46쪽.
- 서대석, 『興夫傳의 民譚의 考察』, 『국어국문학』 67, 국어국문학회, 1975, 23~46쪽.

- 서은아, 「독자 수용의식의 측면에서 살펴 본 『홍부전』의 문학적 가치」, 『태릉어문 연구』 8,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9, 257~284쪽.
- 설성경, 「興夫傳의 必然성과 當爲性 : 興夫의 極貧과 名地 挿話가 지닌 貧富轉移 構造를 中心으로」, 『연세국문학』 3,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2, 23~53쪽.
- 설중환, 「『홍부전』의 상징성과 구조적 의미」, 『어문논집』 24·25, 안암어문학회, 1985, 649~667쪽.
- 안승덕, 「興夫傳 主題考」, 『국문학논집』 9,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78, 121~131쪽.
- 오송자, 「春香傳과 比較해 본 興夫傳」, 『한국어문학연구』 6,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한국어문학회, 1965, 96~101쪽.
- 육영정·심영환·박용만·전경목·김건우·노혜경, 『승충명목으로 보는 조선 후기 향촌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1~262쪽.
- 우쾌제, 「興夫傳 主人公에 關한 意識의 一考察」, 『우리문학연구』 3, 우리문학회, 1978, 110~121쪽.
- 유광수, 「홍부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202쪽.
- 유육례, 「〈홍부전〉의 인식 변이 양상」, 『남도문화연구』 22,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2, 201~223쪽.
- 유육례, 「〈홍부전〉의 인간의 변이양상」, 『동양문화연구』 25,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6, 195~216쪽.
- 이강엽, 「보은담(報恩譚)의 유형(類型)과 의미(意味): “교환(交換)”과 “증여(贈與)”의 측면에서」,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227~261쪽.
- 이강엽, 「보은담(報恩譚)의 새로운 이해와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4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1, 173~200쪽.
- 이명희, 「조선 후기 鄉村의 地域共同體 문화와 자치적 전통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1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383~421쪽.
- 이문규, 「『홍부전』의 문학적 특질에 대한 고찰」, 『선청어문』 11·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1, 321~340쪽.
- 이상일, 「〈홍부전〉에 나타난 인간 소외의 두 양상: 흥부와 놀부의 욕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235~260쪽.
- 이영훈, 「조선 후기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과제」,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

- 선후기』(이영훈 편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367~393쪽.
- 이용식, 『홍부전 주제의 고찰』, 『홍부전 연구』(인권환 편저), 집문당, 1991, 355~376쪽.
- 이원주, 『고대 소설의 골격적 특질 : 홍부전을 중심으로』, 『국문학』 25, 한국어문학회, 1971, 79~95쪽.
- 이지영, 『<홍부전>의 '놀부심술사설' 연구: 무가계 사설의 하나로서』, 『고소설연구』 7-1, 한국고소설학회, 1999, 281~317쪽.
- 이현국, 『조선조 후기 소설의 현실 대응 양상과 그 의의: <이해룡전><허생전><홍부전>에 나타난 물질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학』 72, 한국어문학회, 2001, 281~313쪽.
- 이형대, 『18세기 전반의 농민현실과 『임계탄(壬癸歎)』』, 『민족문학사연구』 22, 민족문학사학회, 2003, 34~57쪽.
- 임형택, 『홍부전의 歷史的 現實性』, 『홍부전 연구』(인권환 편저), 집문당, 1991, 316~353쪽.
- 장덕순, 『興夫傳의 再考』, 『국어국문학』 13, 국어국문학회, 1955, 45~58쪽.
- 전용오, 『홍부전연구: 문학 및 사회사적 측면에서의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176쪽.
- 정진영, 『사족과 농민 -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상호 의존적 호혜관계-』,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153~191쪽.
- 정출현, 『탐욕이 넘쳐나는 시대에 『홍부전』 다시읽기』, 『문학과경계』 3-2, 문학과경계사, 2003, 288~301쪽.
- 정충권, 『<홍부전>과 성조신앙·<성조가>의 관련성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1, 한국구비문학회, 1994, 275~302쪽.
- 정충권, 『경관 <홍부전>과 신재효 <박타령>의 비교 고찰』, 『판소리연구』 12, 판소리학회, 2001, 173~203쪽.
- 정충권, 『<홍부전>의 생태론적 고찰』, 『홍부전 연구』, 월인, 2003, 325~346쪽.
- 정충권, 『<홍부전>과 <바리공주>의 문학치료학적 독해 - 비교의 관점에서』, 『문학치료연구』 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61~78쪽.
- 정충권, 『형제 갈등형 고전소설의 갈등 전개 양상과 그 지향점: <창선감의록>, <유효공선행록>, <적성의전>, <홍부전>을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281~318쪽.

- 정하영, 「〈興夫傳〉의 文學的 本質과 意味」, 『관소리연구』 3, 관소리학회, 1992, 63~85쪽.
- 조동일, 「〈興夫傳〉의 兩面性 - 관소리계 소설 연구의 방법론 모색을 위한 一試 攷-」, 『홍부전 연구』(인권환 편저), 집문당, 1991, 253~315쪽.
- 조용호, 「『홍부전』의 카니발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230~259쪽.
- 조춘호, 「형제갈등을 중심으로 본 홍부전 -박타령과 박홍보전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10-1, 문학과언어연구회, 1989, 149~166쪽.
-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1~319쪽.
- 지금순, 「『홍부전』과 『베니스의 상인』: 作品上의 등장인물의 성격으로 고찰해 본 『홍부전』과 『베니스의 상인』」, 『Dongguk review』 3,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970, 18~31쪽.
- 진영환, 「興夫傳 研究」, 『논문집』 19, 대전공업전문학교, 1976, 193~201쪽.
- 최윤오, 「홍부전과 조선 후기 농민층 문화」, 『역사비평』 57, 역사문제연구소, 2001, 274~293쪽.
- 하성란, 「놀부박사설의 성격과 화폐경제인식: 퇴장화폐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어 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283~315쪽.
- 하성란, 「조선 후기 문학의 화폐경제 반영 양상」,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47쪽.
- 한경구, 「전통사회 농민들의 경제관」,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한국문화인류학회 편), 일조각, 1998.
- 허원기, 「홍부전의 인성론적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19, 한민족문화학회, 2006, 163~190쪽.
- 황혜진, 「조선 후기 요호부민(饒戶富民)과 부(富)에 대한 시선」, 『관소리연구』 43, 관소리학회, 2017, 213~249쪽.
-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 『증여론』, 한길사, 2002, 1~303쪽.
- 모리스 고들리에, 오창현 옮김, 『증여의 수수께끼』, 문학동네, 2011, 1~350쪽.
- 제임스 스콧, 김준동 옮김, 『농민의 도덕경제』, 아카넷, 2004, 1~386쪽.
- M 일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과 속』, 한길사, 1998, 1~237쪽.
- P. A. 크로포트킨 지음, 김영범 옮김, 『만물은 서로 돕는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

론』, 르네상스, 2005, 1~414쪽.

Annette B. Weiner, *Inalienable Possessions -The Paradox of Keeping-While-Giv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p.1~232.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cred and Profane and
its Meaning in <Heungbu-Jeon>

Shin, Ho-r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inding out the relationship of the sacred and profane and its meaning in <Heungbu-Jeon>.

A connecting point between the sacred and the profane in <Heungbu-Jeon> is based on the lifestyle of Heungbu. On the one hand he looks like economical incompetent, on the other hand he donates everything he has to the people in his community. Also people in his community somehow help Heungbu when he gets in economical trouble. This is what we call the circulation of gift giving and reciprocity of the community. The swallow motif shows this mechanism directly. Because the attitude of Heungbu is not quite different to both people on the profane space and swallow on the sacred space, two heterogeneous spaces can be connected.

The aspects of Heungbu's behavior are rooted in the reality of rural community society in Choson dynasty. After two times of war, almost all of communities fall in pieces and members of community try to rebuild the community standard in order to recover the social order. It leads the people do something reciprocal as Heungbu does in <Heungbu-Jeon>. These movements consist not only of the safety first but also of the right to subsistence; it can be called the basic principle of moral economy.

Moreover, <Heungbu-Jeon> restructuralizes two spaces, the sacred and profane: the profane contains the sacred after they are connected. It means the behavior of Heungbu is not individual. His behavior, now, has transcendental basis and this could become one of the social norms. In conclusion, <Heungbu-Jeon> casts some important messages: what kinds of attitudes the individual must have in community.

Key Words Heungbu-Jeon, the sacred and profane, rural community society, moral economy, gift giving, reciprocity

| |
|--------------------|
| 논문투고일 : 2017.10.15 |
| 심사완료일 : 2017.11.09 |
| 게재확정일 : 2017.11.15 |